

주목! 이사람



이흥목 농림전남지역본부장은 28일 오전 11시 영암농협하나로마트에서 열리는 광주전남하나로마트 선도조합협의회에 참석한다.



박태선 농림전남지역본부장은 28일 오후 5시 30분 광주본부 3월 시너지협의회에 참석한다.

광주·전남 소비자 지수 소폭 상승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도시지역 600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 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가 91.6으로 전월대비 3.0%포인트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은 96.7로 전월대비 2.3%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등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수로 장기 평균치를 기준값 100으로 정해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으로 해석한다.

3월 중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생활형편 CSI(Consumer Sentiment Index)는 85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으며 생활형편 전망 CSI도 92로 전월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수입 전망 CSI는 96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 소비지출 전망 CSI는 103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55로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했고, 향후 경기 전망 CSI도 69로 3포인트 상승했다.

취업기회 전망 CSI는 70으로 전월대비 3포인트 상승했으며, 임금수준 전망 CSI는 119로 전월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 가계저축 CSI는 86으로 전월과 같았고, 가계저축 전망 CSI도 88로 전월과 동일했다.

현재 가계부채 CSI는 104로 전월대비 3포인트 하락한 반면, 가계부채 전망 CSI는 101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 전망 CSI는 135로 5포인트 하락했고, 주택가격 전망 CSI는 99로 8포인트 상승, 임금수준 전망 CSI는 112로 1포인트 상승했다.

/서미애 기자

사학연금, 연구지원 대상자 공모

사학연금공단(이사장 이종훈)은 고객, 전문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학연금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7년 외부 연구지원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사람학교교직원연금법 가입 교직원 및 국내 대학·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전문가(박사학위 취득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사학연금제도 개선 및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사학연금 기금운용 효율성 강화방안, 기타 사학연금제도 운영의 3개 분야 중 연구 과제를 정해 응모할 수 있다.

연구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연구과제별 소정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연구자의 최종 연구논문은 공단이 발행하는 '사학연금 연구'에 게재되며, 별도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4월 1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연구계획서 및 이력서 등을 접수처 e-mail(tp-research@tp.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28일 개별 통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또는 연구제도연구소(061-338-0251~4)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밸리 '4차 산업혁명' 요람 우뚝

200개 기업유치...6,000여명 고용창출 기대  
23개 기업과 추가협약...누적투자금 8,810억  
본격 성장기 진입...2020년까지 500개 목표

한국전력과 지자체, 지역대학이 공동주최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200개 기업이 투자를 약속하면서 이에 따른 누적 투자 금액은 8,81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6,086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은 27일 오후 나주 본사에서 광주, 전남도, 한전KDN과 함께 글로벌에너지밸리 등 23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 기업들은 우진산전 등 에너지신산업 기업 13개사와 수·배전반 제조분야의 신장전선 등 전력기자재 기업 10개사 등 총 23개 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갈고시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글로벌텔레콤 등 6개 기업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예코그린텍 등 7개 기업이 광주지역에, 가람전기 등 10개 기업이 나주지역에 투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은 도입기를 거쳐 2016년까지 177개 기업을 유치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총 200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성장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한전은 200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통해 누적 투자금액은 8,81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6,086명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올해 250개 기업유치 목표와 함께 대기업과 외국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



한국전력은 27일 오후 나주 본사에서 광주, 전남도, 한전KDN과 함께 글로벌에너지밸리 등 23개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에너지밸리의 성공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은 한전이 중심이 돼서 광주, 전남도, 나주시, 지역대학 등과 공동으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에너지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낸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전은 2020년까지 에너지관련 기업 500개 유치를 목표로 정했으며, 사업 원년인 2015년 77개 기업을 유치한 데 이어

2016년 100개 기업을 유치했다. 매년 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당초 목표를 2배 가까이 넘어선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까지 투자를 약속한 기업 가운데 52곳이 입주해

마무리했고, 착공에 들어간 곳이 21곳, 용지계약을 마친 곳도 33곳에 달하는 등 투자실행률이 66%에 이른다. /서미애 기자

전남글로벌게임센터 비전데이 성료

로케이션 베이스드 VR 비전 제언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이 운영하는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주관한 비전데이 행사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나주 혁신도시 호тел코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 정순주 관광문화체육국장, 나주시의회 김관근 의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영재 본부장을 비롯해 게임업계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연·체험과 성과공유·비전제언 행사장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큐비언즈 VR(CUBIANS VR)'와 '데이모스 릭(DEIMOS RICK)', '베르서스(VERSUS)' 등 체험형 게임콘텐츠 7종을 전시한 시연·체험존이 특히 인기를 끌었다.

전남 체험형 게임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언한 ㈜바른손 강신범 대표는 "게임산업 기반이 열악했던 전남지역에 VR산업 인프라를 갖추고 단기간에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며 "앞으로는 지리와 문화, 고교의 특성을 반영한 '로케이션 베이스드 VR(Location Based VR)'으로 추진해 지역에 특화된



전남글로벌게임센터가 주관한 비전데이 행사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전남VR산업의 성공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남글로벌게임센터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이카게이츠의 건설 디펜스 게임 '큐비언즈 VR(CUBIANS VR)'는 이달 초 개최된 'VR EXPO 2017-유니버시아드'에서 우수VR게임으로 선정됐다. 온라인 액션게임 ㈜네개의 '베르서스

(VERSUS)'는 태극 조이텔레콤과 동반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오창렬 전남진흥원장은 "이번 비전데이 행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체험형 콘텐츠 게임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해 본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주)필립에셋, 상승페스티벌 '호응'

영업석 회장 "미래 창출 가능성...행복했다"

광주 본사·전국 8개 지역본부 직원등 참여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직원모두의 노력이 의해 이뤄집니다."

장외주식 정보제공 및 투자전략 컨설팅 업체인 (주)필립에셋(대표이사 회장 영업석)이 상승페스티벌을 열어 큰 호응을 얻었다.

(주)필립에셋은 최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영업석 대표이사 회장과 박진연 에어필립 대표이사, 양주용 필립크라이드펀딩 대표이사를 비롯한 광주 본사 및 전국 8개 지역본부 직원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승페스티벌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했다.

임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필립에셋 가족들이 전문적·객관적·합리적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제공했으면 하는 의미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면서 "장외주식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객과 함께 일류 종합자산관리 전문 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필립에셋 가족들의 노력에 의해 이뤄진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직

원들 간 서로 바라보면서 소통하고 의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이번 대회 총평을 통해 "필립금융기업이 이남이 있기까지는 저를 비롯한 임원들, 그리고 직원 모두의 힘겨운 노력이 뒤따랐기에 가능했다"면서 "즐거워진 한 일이 오히려 부담을 준 것 같지만, 오늘 행사를 통해 필립에셋의 미래를 엿볼 수 있어 너무나 행복했고 즐거웠다"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반드시)필립', '(실)립'으로 '반드시 일어선다'는 의미를 두고 있

는 (주)필립에셋은 광주 상무지역에 본사를 두고 서울·대전·대구·전주·순천 등 8곳에서 비상장주식 이남바 장외주식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선진경영기법으로 지역민에게 안정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 자회사인 필립엔터테인먼트, 필립크라우드펀딩, 필립인슈어런스를 설립하는 등 최근 종합자산관리 기업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주)필립에셋을 이끌고 있는 임 회장은 국내 장외주식 전문가로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투자의 기본 원리를 경제TV를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서미애 기자



(주)필립에셋은 최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광주 본사 및 전국 8개 지역본부 직원 등 1,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승페스티벌 프리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했다.



현대차그룹과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은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서상기 총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자동차 과학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 소외지역 과학 꿈나무 육성

우주청소년단과 '자동차 과학교실' 협약

현대차그룹이 소외 지역 '과학꿈나무'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7일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정진행 현대차 사장, 서상기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자동차 과학교실'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동차 과학교실'(이하 과학교실)은 자동차 기술을 활용해 소외 지역 청소년에게 과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차 관련 역사, 상식, 미래 기술 등을 배우는 산업 소개와 엔진, 전기차, 드론 등을 직접 제작하는 공작교실로 구성

된다. 자동차 산업 소개 부문에는 현대차 그룹 임직원이 멘토로 나선다.

과학교실은 현대차그룹 사업장 인근 소외지역 25개교, 1천 명의 초·중학생을 선발해 진행한다. 앞으로 3년간 3천 명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말에는 과학교실 참여 학생 가운데 우수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동차 과학 캠프'를 개최한다.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 캠프에서는 생산 공장, 브랜드 체험관 등 시설 견학, 과학 기술 체험 등이 진행된다. /서미애 기자

호남 우수기술 창업기업 애로 청취

김규욱 기보이사장, 호남지역 간담회

기술보증기금은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기보 김규욱 이사장 주재로 호남 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호남 지역 우수 기술창업기업 대표 12명이 참석, 기보 보증담당 이사과 부사장, 영업본부장과 영업점장, 영업점의 젊은 직원들이 함께 배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날 기업대표들은 창업 초기와 데스밸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여성기업인

에 대한 우대정책, 보증료 감면 등 적극적

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김규욱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한 자리인 만큼 의견을 경청해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금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자금력이 부족한 우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기보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미애 기자

신보, 창업육성 '스타트업 네스트' 모집

신용보증기금이 다음달 10일까지 창업기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NEST)'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 ▲액셀러레이팅 ▲금융지원 ▲성장지원 등 4단계로 이뤄진 육성 프로그램이다.

보증·투자 등 금융지원은 물론, 컨설팅·멘토링·기술자문·해외진출·M&A중개 등 비금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복합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미래신성장 산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보는 올해 상반기 40개, 하반기 60개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00개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정해 육성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8개 창업성장지원사업 2개의 창업드림센터(창업보육실)를 설치하는 등 창업보육 인프라를 갖춘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접수는 신보 홈페이지와 정부 창업통합 포털 'K-스타트업'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서미애 기자